

#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여 쇠퇴하는 자본주의 끝장내자!

헬조선변혁 전국추진위원회

2025년 5월 1일

www.k-rev.org

문의 010-4725-36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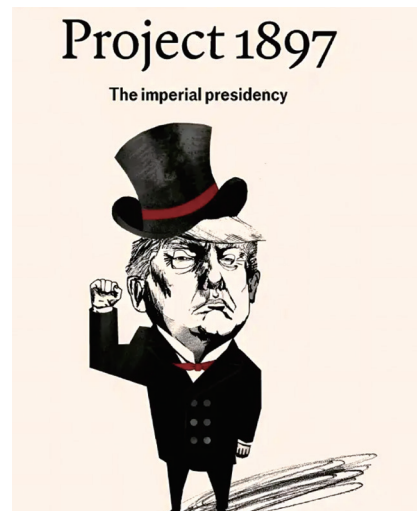
뜻깊은 국제노동절 135주년을 맞이하여 만국의 노동형제들에게 만인이 사람답게 사는 인간해방 세상을 향해 어깨걸고 함께 전진하는 동지로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잘 알다시피 이 국제노동절은 1889년 7월 프랑스혁명 100주년 기념식에 참가한 각국 노동지도자들이 국제조직인 제2 인터내셔널을 만들자고 결의하면서 다음 해인 1890년 5월 1일 모든 나라에서 집회와 행진을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세 해 전인 1886년 5월 1일 시카고를 비롯한 미국 각지의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제 실시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비롯한 가열찬 거리·광장 투쟁을 개시했던, 그리고 그 투쟁 과정에서 10여 명의 노동자와 노동운동가들이 총에 맞아 죽거나 살인으로 조작되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역사적 사건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35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구촌의 여러 나라 수많은 노동자들은 하루 8시간 노동제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시간 뿐 아닙니다. 장시간 노동을 시키기 위해 자본가는 임금을 억제합니다. 임금이 낮아야 노동자가 부득이하게 장시간 노동을 감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임금억제는 자본가에게는 일거양득입니다. 임금 적게 줘서 좋고 노동시간 길게 늘여서 좋고 말입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처럼 노동현실은 지구촌 어디서나 “노동지옥 자본천국”입니다. 이런 자본가 세상 하루빨리 끝장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본가 세상, 자본주의 사회는 쇠퇴하고 있습니다. 사멸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해 전부터 자본주의가 쇠퇴하고 있다고, 자본주의 세상을 변혁하러 떨쳐나서자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면 미국을 보라, 자본주의 종주국인 미국이 잘 나가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고 타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후 몇 년이 지난 지금 미

국 자본주의의 현재가 어떠합니까? 잘 나가고 있습니까,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언제 어떻게 사멸할지는 장담하기 어렵지만 사멸을 향해 쇠퇴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트럼프 정권은 미국이 한창 잘 나가던 2차 대전 이후에 자신들이 만든 국제질서인 ‘브레튼우즈 체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자유무역 체제를 보호무역 질서로 바꾸려 날뛰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엔을 해체하려 하고 있

습니다. 그리고 별거벗은 제국주의 정책을 펼치려 하고 있습니다. 멀쩡한 남의 나라 땅인 그린란드를 내놓으라고 하고,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합병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일시적인 것이거나 우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일부 이론가들은 자본주의에 쇠퇴의 법칙, 장기적인 이윤율 저하 경향 법칙이 작동하고 관철된다는 것을 부정합니다. 하지만 자본주의는 1970년대부터 이 이윤율 저하 경향으로 인해 단말마적 비명을 질러왔습니다. 이것은 실증적으로 확인되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나온 자본 측의 대응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였습니다.

그러나 이 신자유주의는 노조탄압과 노동유연화로 선진 자본주의 나라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크게 악화시켰고, 이것은 다시 노동자의 출산율 저하와 인구감소를 악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이들 나라의 경제성장률을 제로 수준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신자유주의의 부메랑이었습니다. 가장 전형적인 나라가 바로 이웃 일본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자본은 낮아진 이윤율을 우회하고자 공장을 문 닫고 개발도상국으로 대거 이전시켰습니다. 그 결과 선진국의 산업은 공동화했습니다. 이렇게 산업이 사라지니 일자리가 사라지고 경제성장이 멈추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트럼프는 이 장기적 추세를 반전시키려고 날뛰고 있는 것입니다. 해외에 나간 기업을 다시 불러들이겠다고 말입니다. 그게 이른바 리쇼어링(reshoring) 아닙니까? 그러나 해외로 나간 기업들은 미국으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미국의 임금과 개발도상국의 임금이 하늘과 땅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단적인 예로 ‘애플’은 대만 회사 폭스콘 중국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것을 포기하고 미국 공장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미국 자본주의의 쇠퇴는 되돌이킬 수 없습니다. 일본도 유럽연합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선진국 자본주의가 쇠퇴하는데 개발도상국 자본주의는 잘 나가겠습니까? 선진자본주의 나라들에 수출해야 경제가 굴러가는 개발도상국들의 자본주의도 침체를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자본주의는 더 이상 인류를 먹여살릴 수 없습니다. 사멸을 향해 나아가는 자본주의를 끝장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냥 생존하는 것을 넘어 인간답게 생활하기 위해서입니다. 국제노동절을 맞이하여 만국의 노동형제들에게 제안합니다. 하루 8시간 노동제 쟁취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자본주의 세상을 끝장내기 위해서 단결·투쟁할 것을 결의합시다. 투쟁! 혁명!

## 한국의 노동자여 단결하여 천민자본주의 파쇼체제 끝장내자!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한국의 노동자에게도 해당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바로 자본주의를 끝장내려 할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더 발전시켜야 한다, 자본주의가 성숙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등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고방식은 이중적으로 틀렸습니다. 하나. 우리나라는 이미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선진국입니다. 그러므로 자본주의가 더 발전해야 한다는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둘. 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자본주의가 인민대중을 먹여살리지 못하고 인간다운 삶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그런 비인간적·비이성적 질서는 변혁돼야 마땅한 것입니다. 전노협을 청산하면서 내렸던 노동해방, 인간해방의 기치를 다시 치켜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자본주의를 변혁하는 데는 각 나라가 처한 주·객관적 조건을 타산해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유럽 같은 복지국가에서는 곧바로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전략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 나라에서는 자본주의 안에서 사회주의 요소를 일부 도입하는 등 자본주의를 유지하는 노력을 할 만큼 다 해봤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는 이제 자본주의를 유지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해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사정이 다르고 다소 복잡합니다. 한국에는 미 제국주의의 군사적 강점과 남북의 분단, 그리고 이 두 가지로 인해 빚어진 파쇼통치 질서가 있습니다. 이 질서가 오랫동안 우리 노동자·민중의 의식을 극심하게 왜곡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 해방을 요구해야 할 가난한 사람들이 태극기부대에 동원되어 노동운동을 반국가세력이라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 한국의 자본주의는 자본주의 가운데도 가장 질이 나쁜 천민자본주의입니다. 극소수 독점재벌에 경제력이 집중된 초과독점자본주의입니다. 또 정경유착과 특혜로 부를 축적하는 지대추구적 자본주의입니다. 이런 천민자본주의 체제가 노동자·민중의 삶을 극도로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세계최고의 자살률, 세계최저 출산율, 세계최고 노인빈곤율, 세계최고 산재사망률 등입니다. 그리고 이 천민자본주의 질서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세계최고의 임금격차를 만들어 내고 있고, 대다수의 청년들을 절망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독점재벌과 그곳에 빨대를 꽂고 있는 지배계급이 파쇼통치 질서를 떠받치면서 노동자·민중의 사회적·정치적 진출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는 이 천민자본주의 파쇼체제를 타파·변혁하는 것이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거쳐야 할 급선무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급진(반反자본주의) 민주주의 혁명입니다.

노동형제 여러분, 노동운동 동지 여러분!

세상은 격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관적 의사나 의지와 무관하게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격변하는 세상을 그저 구경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격변하는 세상에 주체적 입장에 서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세상을 이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 지구적으로는 사회주의 혁명으로! 한국에서는 천민자본주의 파쇼체제(헬조선)를 변혁하는 급진민주주의 혁명으로!**

# 헬조선 변혁 10대 투쟁 과제

## 하나. 독점재벌 완전 해체를 통한 사회양극화 해소

▲재벌이 해체되어야 하는 이유: 재벌은 그 자체가 불법 기업집단이다. 뿐만 아니라 재벌은 이런 불법으로 나라의 경제적 부를 소수의 손에 집중함으로써 특권계급을 형성하고 있다. 또 이 경제력으로 사회권력과 정치권력까지 좌우하여 한국사회를 재벌과두제 사회로 만들어 양극화시키고 민생을 파탄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것은 민주주의 원리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독점재벌은 신자유주의를 무제한적으로 관철시켜 대자본과 중소·영세자본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더불어 노동시장에서 기업규모 간 양극화와 정규·비정규직 간 양극화를 빚어내고 있다. 이것이 대학서열화와 입시과열을 낳고, 사교육병을 낳고, 학교교육을 황폐화 시키고 있다.

▲재벌개혁은 답이 아니다: 김대중 정부 이후 재벌개혁을 한다며 상호출자·순환출자 못하게 하고 지주회사 제도로 대체했다. 그러나 문어발식 기업집단을 총수일가가 소유·지배하는 재벌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재벌체제 해체는 재벌해체가 아니다: 문어발식 기업집단은 그냥 둔 채 재벌 총수일가의 직접 경영만 배제하지는 재벌체제 해체는 눈감고 아웅하는 것이다. 이 경우, '재벌집 막내아들'에서 보았듯이 총수일가가 대주주로서 실제로 경영권을 행사한다.

▲재벌을 해체하기 위한 방법: 2차대전 이후 미국 맥아더 사령부가 일본 군국주의를 해체하는 차원에서 전범 기업인 재벌을 해체했던 방법을 참조하면 된다. 소급입법으로 부정축재자를 처벌하고, 재벌의 부정축재 재산을 전액 환수하며, 재벌 총수 일가족이 관련기업 경영에 일체 참여하지 못하게 못 박아야 한다.

## 둘. 노동악법 철폐와 노동조건의 획기적 개선

▲개별적 노사관계에서: 5인 이하 사업장은 물론 어떠한 노동자도 배제함이 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주40시간제의 경우와 같이 이런저런 예외조항이나 단서조항을 붙여 원래 정한 기준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금한다. 법정 근로기준을 위반한 기업과 경영자를 엄벌에 처한

다.(숨방망이 처벌 근절) 노동시장을 유연화 하고자 도입된 정리해고제, 근로자 파견제, 탄력근로제, 계약직 보호법 등을 철폐한다. 선진국에 조응하게 법정 근로기준을 상향한다.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노동자에게도 파업의 자유를 보장한다. 노조없는 사업장 노동자에게 단결의 자유를 보장한다.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실업자, 이주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조합으로 단결할 수 있는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이를 위해 교섭창구단일화를 폐지한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선파업 후교섭을 보장한다. 파업기간 중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무노동무임금제를 폐지한다. 비공인 파업 금지를 폐지한다. 파업행위에 대한 업무방해 적용을 배제한다. 공무원과 교사, 소방관과 경찰에게도 단결과 파업의 자유를 보장한다. 기타 파업의 자유를 봉쇄·무력화하는 노조법상 독소조항 일체를 폐지한다. 이를 위해 현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법은 완전 철폐하고 노동보호입법을 새로 제정한다. 행정기구인 노동위원회 기능을 축소하고 노동법원을 설치한다.

▲노동조건의 획기적 개선: 기업규모 간, 고용형태 간 노동조건 및 임금 격차를 타파하여 모든 노동자가 격차와 차별 없이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 수준의 생활임금을 지급받도록 한다. 모든 노동자의 실 노동시간을 주40시간제로 단축하고(주52시간제 금지!) 빠른 시일 내에 주30시간제로 단축한다. 휴가 기간을 최저 연 30일 수준으로 연장한다. 육아휴직뿐 아니라 간병휴가제를 실시한다. 육체노동자에게도 안식년을 제공한다.

## 셋. 주택 재분배/택지 국유화로 모든 국민의 주거권 보장

▲주택 재분배: 많은 국민이 자기 집을 갖지 못하여 고생하는 원인은 주택분배의 불평등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이 주거빈곤 문제는 주택을 더 많이 짓는 것이 답이 아니고 있는 주택을 비거주자의 소유로부터 실거주자의 소유로 전환시키는 것이 답이다. 이를



위해서는 비거주자가 소유하는 주택을 유상으로 몰수하여 실거주자에게 유상으로 분배해야 한다.

- ▲ 높은 집값의 원인은 높은 땅값이므로 택지는 국유화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 ▲ 주택 거래도 시장에 맡기지 않고 국가기관이 관장해서 투기를 근절해야 한다. 싱가포르를 참조하자! 초저출산율의 주된 이유가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내 집 마련의 어려움이다. 국가소멸을 면하고자 한다면 이런 혁명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넷. 기초연금 월100만원으로 노인빈곤 타파

- ▲ 노인빈곤율, 노인자살율 세계 최고! 이라고도 국가인권을 말할 것인가? 이것은 노인학대다.
- ▲ 노인 대다수가 국민연금을 아예 못 받거나 생활할 수 있는 금액의 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세계 최고의 노인빈곤을 타파하려면 국민연금 개혁 타령만 하지 말고 노인기초연금을 지금 즉시 월 100만원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

### 다섯. 보육에서 대학과 평생교육까지 전면 국영화와 무상화

- ▲ 교육의 이념부터 재설계 돼야 한다. 지금처럼 자본을 위한 인재 육성이나 노동력 양성이, 또는 명문대 입학 through 출세와 성공이, 교육의 목적과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의 인간성 자체, 인간 존엄성의 해방이 교육의 목적과 목표가 되어야 한다.
- ▲ 이런 목적에 부합하려면 교육은 사적 영리기관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가에 의해 무상으로 제공돼야 한다. 모든 교육기관은 국영화해야 한다. 여기에는 유아교육(보육)과 평생교육도 포함된다.

### 여섯. 예방에서 치료까지 보건의료 국영화와 무상화

- ▲ 보건의료의 중점을 발병 후 치료보다 예방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돈 되는 의료보다 필수의료의 우선돼야 한다. 의료가 이렇게 바뀌려면 최근 의료대란에서 보았듯이 의료계 전반이 혁명적으로 변혁돼야 한다. 병원도 의사들도 나아가 자식을 의사 만들려는 학부모들도 모두 의료에 대한 관점을 코페르니쿠스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 ▲ 병원, 의원과 약국 등 모든 의료기관은 국영화되고 모든 보건의료 서비스는 무상으로 제공돼야 한다. 교육과 의료의 국영화·무상화는 이탈리아와 유럽 국가들을 참조하자!

### 일곱. 자본주의 기업농(경자유전 원칙에 어긋나는) 금지와 소농 우대. 농업·농촌 공동체성 보호와 육성

- ▲ 농업은 양극화하여 대농 위주로 변했다. 그런데도 국가는 소농을 보호하기보다 자본가적 기업농을 촉진하고 있다. 이것은 경자유전을 원칙으로 한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이것은 또 농촌소멸을 재촉한다. 농업의 자본제화는 금지돼야 한다. 소농을 우대하고 농업과 농촌에 공동체성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한다.

### 여덟. 국가보안법철폐 등 반민주악법철폐와 국가폭압기구 해체

- ▲ 사상의 자유, 결사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 이를 집행하는 국정원은 해체해야 한다. 이번 내란사태에서 보았듯이 국정원은 여전히 국내정치에 개입하고 있다. 그 밖의 국가억압기구들은 직접적으로 국민의 통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 판사·검사, 경찰청장, 검사장, 법원장 등은 국민이 직접 선출해야 한다.

### 아홉. 제헌의회 소집으로 민중헌법 제정과 제7공화국 건설

- ▲ 현행 헌법대로 국회의원들이 주도하는 개헌으로는 새로운 나라, 제7공화국을 만들 수 없다. 민중이 주도하는 제헌으로 민중헌법을 제정해야만 참으로 새로운 공화국을 건설할 수 있다.
- ▲ 민중의 주도하에 개헌 아닌 제헌을 하려면 제헌의회가 소집돼야 한다. 그리고 제헌의회를 소집하려면 현행 헌법에 제헌의회 소집에 관한 절차 규정을 두는 원포인트 개헌을 해야 한다. 칠레의 경우를 참조하자!
- ▲ 새 헌법에는 권력구조(제왕적 대통령제) 수술만이 아니라 위에서 말한 변혁과제들이 포함돼야 하고, 민중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제 권리가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한다. 그리고 민중권력이 성립할 수 있도록 모든 국민과 사회단체의 정치활동 자유와 국회의원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통령 결선투표제, 중간평가제 등이 헌법에 명시돼야 한다.

### 열. 노동자·민중 총단결 총투쟁으로 민중권력 쟁취

- ▲ 이런 민중헌법 하에서 민중이 정치권력을 전취하고 민중 자신이 스스로를 통치하는 민중권력을 쟁취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그것이 21세기형 진정한 민주주의이다.